유니슨
(018000.KQ)

재생에너지

2020. 08. 25

그린뉴딜의 핵심 수혜주로 부상





재생에너지/전기차 한병화
02)368-6171
bhh1026@eugenefn.com

NR

현재주가(8/24)	3,130원

Key Data	(기준일: 2020.08.24)
KOSPI(pt)	2,330
KOSDAQ(pt)	816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십억원)	346
52 주 최고/최저(원)	3,290 / 570
52 주 일간 Beta	1.22
발행주식수(천주)	110,698
평균거래량(3M,천주)	14,909
평균거래대금(3M,백만원)	30,826
배당수익률(20F, %)	0.0
외국인 지분율(%)	15.6
주요주주 지분율(%)	
아네모이	24.9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9.0	152.4	258.1	224.4
KOSPI 대비상대수익률	46.4	137.3	230.5	190.4

Financial Data

결산기(12 월)	2017A	2018A	2019A
매출액(십억원)	186.7	165.2	75.9
영업이익(십억원)	16.0	1.0	(13.8)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1.0	(14.4)	(4.1)
당기순이익(십억원)	1.1	(14.4)	(4.1)
EPS(원)	14.8	(156.8)	(43.7)
증감률(%)	0.0	적전	적지
PER(배)	258.3	n/a	n/a
ROE(%)	3.3	(24.7)	(5.7)
PBR(배)	7.1	2.1	4.3
EV/EBITDA(배)	18.8	45.2	n/a

주: 회사가이던스 기준, EPS/PER 은 현재가치 환산 순이익 기준

▪ 대주주 변경으로 사업 안전성 확보

유니슨의 대주주가 도시바에서 국내 사모펀드로 변경되었다. 도시바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2012 년에 유니슨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원전사업에 집중하면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부도났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도시바는 자회사들을 매각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유니슨을 인수한 사모펀드는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자금을 제공해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펀드의 목적은 기업을 인수해 중장기에 걸쳐 턴어라운드를 시킨 뒤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재매각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국내 투자자를 만나게 된 유니슨은 새로운 성장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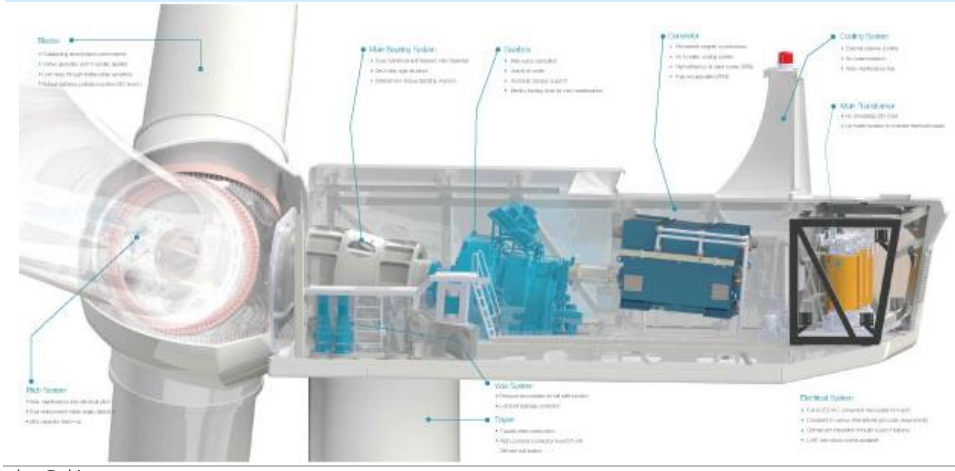
▪ 그린뉴딜 정책으로 동사의 풍력사업 성장 가시성 높아져

8 개이던 국내의 풍력터빈업체들은 이제 유니슨과 두산중공업 밖에 남지 않았다.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으로 2030 년까지 15GW 의 풍력을 설치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산 풍력터빈업체들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창출과 산업육성이라는 그린뉴딜 정책의 대의상 해외로부터 수입한 터빈의 설치는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업체인 도시바가 대주주인 회사에서 사실상 국민기업으로 변경된 유니슨에 정책수혜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하반기 수주확대,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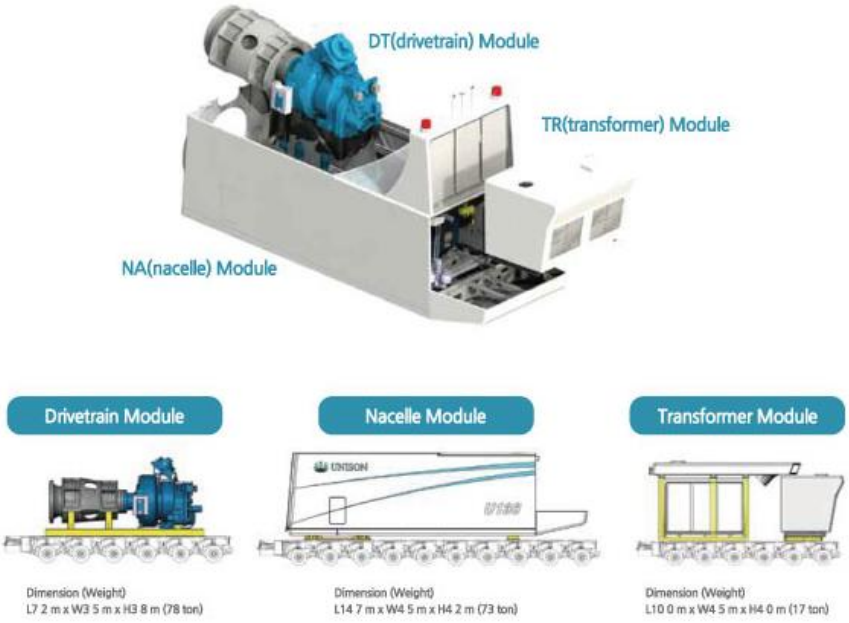
동사의 실적은 주요 풍력단지의 인허가 진행과 신규 풍력터빈의 출시와 연관이 높다. 2017 년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한 이유도 영광풍력 등 대규모 단지 허가와 저풍속용 2.3MW 신규터빈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 2GW 수준의 풍력단지 개발 계획이 하반기부터 향후 약 3 년간 순차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의 산악지형에 특화된 조립식 신규 터빈 4.2MW, 4.3MW 를 상용화한 상태이다. 올 하반기부터 양양, 봉화, 태백 등에서 수주가 확정되고, 내년부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책과제로 개발중인 8MW 급 해상풍력 터빈도 개발이 완료되는 2022 년 이후부터 국내 해상풍력단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 유니슨의 4MW 급 신규 터빈



자료: 유니슨

도표 2 신규터빈은 모듈식이어서 설치가 용이



자료: 유니슨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8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1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0.06.30 기준)